

르 보 ●

“장티브스 보균자 색출,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물 좋고 山 좋은 兩班의 고향

安東郡 보건소를 찾아서

太白山 줄기의 精氣를 이어 받은
兩班의 고향 安東 - .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물줄기가
安東市街를 감싸고 흘러 물 좋은
고장으로 이름난 안동은 그래서 그
런저는 몰라도 국내 굴지의 안동댐
이 건설되어 안동의 산업발전에 크
나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겨울 안동군 보건소를 찾았

을때 朴南燮소장을 주축으로 하여
崔洋燾보건계장을 선두로 열심히
군민을 위해 뛰고 있었다.

경북지부의 金志默국장과 金輔燮
사업과장에게 제일 모범되는 보건
소를 추천하라고 했더니 섣뚱 安東
郡 보건소를 추천한것도 무리 없는
추천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모범
보건소다운 변모를 풍기고 있었다.

안동군은 풍산읍을 비롯하여 13개면에 14 만명을 수용하고 있는慶北道 굴지의 郡소재지였다.

古來로부터 班常을 가리기로 兩班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기며, 더구나 儒學의 총본산인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이 있어 더욱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보건계몽 및 건강관리도 타 고장에 비해 힘들것 같아 보였으나 정말은 먼저 말한 이유때문에 더욱 더 보건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었다.

崔洋薰보건계장은 보건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답게 정열을 기울여 보건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역설한다.

「우리郡은 다른 군에 비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지요.

특히 여름철 전염병이 만연될 시기를 대비해서 연 2회 「주민방역의 날」을 설정하고 디·테이를 정해서 안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분무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7월이나 8월중에 동장교육을 실시해서 보건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을 넓히도

록 힘쓰고 있습니다.

읍면장회의시에도 담당洞에 보건계몽활동을 지시해서 강력한 행정지원도 받고 있지요.」

崔보건계장은 79년도에 실시한 장티브스 보건사업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이 사업은 크게 인정을 받아 내무부 주최로 성공사례도 발표하여 크나 큰 共鳴을 불러 일으킨 바도 있었다.

「79년도에 많이 유행한 장티브스 보건사업때는 굉장한 고생을 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5萬名分の 변을 채취하여 36명의 장티브스 양성자를 색출해서 (0.07%) 등록 치료를 했을때는 정말 보건사업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내무부에서 주최한 성공 사례

사진 : 좌로부터 朴소장, 崔계장, 金국장, 鄭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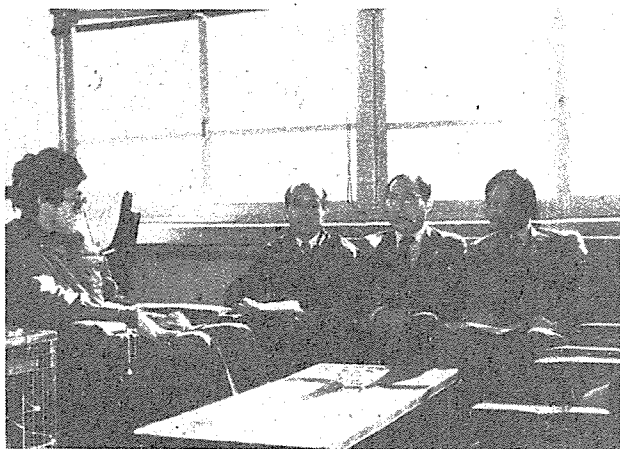




사진 : 최계장, 김과장, 정실장의 대담광경

발표회에까지 나아가 발표를 해서 많은 칭찬을 받은바도 있지요.」

「기생충사업만 하더라도 81년도 사업을 그해 5월 21일까지 100% 완결해서 아마 경북도내에선 제일 빨리 끝낸 郡이 될것 같아요. 82년도에도 일반주민 18,000명 내민 2,100명 도합 20,100명을 지난 5월 15일까지 100% 완결해서 기업을 토했읍니다 하하……」

이렇게 100%를 완벽하게, 또 빨리 끝내는데 대한 동기랄까 수단은 어떤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3월경 반상회보에 대대적으로 기생충계몽내용을 선전합니다. 그리고 유인물도 배포하구요. 또한 寄協 경북지부에 요청해서 보건요원들의 회의시 영화상영과 슬라이드등을 상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바쁜 농번기를 될수록 피해서 그 이전에 번수집을 끝내고 검사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기생충 有無를 막론하고 개인결과 통보를 해줌으로써 궁극증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애로점은 약만 먹으면 구충이 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검사의회 호응도가 낮아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계몽교육의 절실함을 느끼고 꼭 검변후 투약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끔 인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생충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기생충의 무서움을 알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이라고 박소장 崔계장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다.

「안동, 봉화, 울진등 낙동강유역 지역은 지스토마 감염 농후지역입니다. 민물고기는 절대로 날로 먹지 말도록 표지판을 만들어 5개 정도 게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樂山樂水의 고장 安東, 역시 양반 고을답게 모든 보건사업도 잘 되는구나라를 느끼며 金志默 사무국장 金輔燮 사업과장등 기자 일행은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C記者)